

## 구어 의문문 어미의 문법성과 화용성\*

- 여성 자유발화의 억양 분석을 통하여 -

조민하

(경희대학교)

### <Abstract>

Jo Min-ha. 2016. **Grammaticality and Pragmatics of Interrogative Ending In Spoken Language: Through Analysis of Intonation in Women's Spontaneous Speech.** *Korean Semantics*, 5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consider both grammaticality and pragmatics of interrogative ending in spoken language. We analyzed the intonation of 35 women's spontaneous speech with a length of 300minutes and drew the following conclusions from the analysis. First, Most endings that realized interrogative sentence in spoken language were found evenly in declarative sentence and interrogative sentence and showed difference only in functions and degree of meaning. Second, intonation had lower extent of contribution as the functional strength of interrogative sentence was higher. By contrast, intonation had higher extent of contribution as the functional strength of interrogative sentence was lower. Grammaticality and pragmatics were inter-complementary. Third, intonation was combined with morphological elements and involved in pragmatic functions. Non-assertive endings were combined with 'L:', 'LH', and 'LHL' to be used in soft and polite expressions. Confirmative and assertive endings were combined with 'H', 'HL:', and 'LHL' to be used in assertive expressions. Fourth, As the higher, use of flexible

---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1011304).

intonation and forms revealing confidence was more common, and furthermore, politeness strategy based on prosody elements was used more commonly.

핵심어: 구어(spoken language), 의문문 어미(interrogative ending), 문법성(grammaticality), 화용성(pragmatics), 억양(intonation), 자유발화(spontaneous speech)

##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자유발화의 억양 분석을 통하여 구어 의문형 어미의 문법성과 화용성을 재고하는 데 있다. 의문문은 화자 미지의 정보를 청자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 문장 유형이다. 따라서 의문형 어미는 문법적 범주를 표시함과 동시에 양태성<sup>1)</sup>을 드러낸다. 의문형 어미의 양태성은 실제 담화 상황에서 억양과 결합하여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며 청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화용적 기능에 확장되거나 집중된다. 본고는 구어 의문문 어미들의 문장 종결양상과 화용적 특성이 무엇인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특히 그동안 자세히 다루지 않았던 억양의 기능을 실험적 방법을 통해 논의하고자 한다.

그간의 의문문 어미에 대한 연구들은 형태, 통사적 측면에 집중되었다. 특정 형태의 문 종결 범주와 대우법 등급을 분류하고, 형태와 문법 기능이 대응을 이룬다는 단선적 시각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의문형 어미의 규정이 문법 기능을 통해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면 범주 구분의 기준은 형식보다는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구어 자료를 대상으로 한 권재일(2004)에서는 의문문 실현이 고유한 의문어미뿐 아니라 범용어미와 여타의 문장종결법을 수행하는 어미들을 통해 실현된다고 보았다.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하여 의미 표현이 이루어지는 구어 특성을 파악한 논의이다. 본고에서는 종결어미를 대상으로 기능적 관점에서 의문문을 판별하고, 이러한 문법 기능을 실현한 어미를 의문문 어미로 분류하고자 한다.

1) 본고에서 사용하는 양태성은 Lyons(1977:452)의 기술 ‘명제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는 본질적이고 광범위한 정의를 따를 수밖에 없음을 밝힌다.

의미 차원의 접근은 장경희(1985), 박재연(1998, 2004)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장경희(1985)는 담화적 관점에서의 연구이다. 박재연(1998)은 반말체 종결어미의 의미 기능을 양태적 관점에서 기술하였다. 박재연(2004)는 ‘명제, 화자, 태도’의 관점에서 양태성을 지니는 선어말어미와 종결어미의 의미 체계를 세웠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외 허연경(2008)에서는 의향의문형 어미에 대해 형태, 통사, 의미, 화용적 측면에서의 통합적 고찰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에서 양태성을 여전히 형태론적 대응 범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그간의 의문문 어미에 대한 연구들은 적지 않다. 다만 아쉬운 점은 문법적 측면과 의미적 측면이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는 별도의 공간에서 배타적으로 다루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담화 안에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데 실제적으로 기여하는 운율 요소의 고려가 매우 추상적이다. 임홍빈(1984), 박재연(1998)에서 억양이 형태 측면의 불완전성을 보완할 수 있는 요소로 언급되었으나 이후의 가시적인 성과는 미흡하다.

구어 종결어미에 실현된 억양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논의는 조민하(2014, 2015<sub>1</sub>, 2015<sub>2</sub>)이다. 그러나 ‘-거든, -잖아’와 같이 일부 형태에 집중되거나, 어말어미 전체를 조망한 논의이므로 의문형 어미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조민하(2015<sub>2</sub>)에서는 종결 기능은 형태와 운율 요소가 협응하되, 억양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기술한 바 있다. 억양 분석을 통해 의문형 어미의 문법성과 화용성에 대한 논의를 심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의 목적을 위해 여성 자유발화에 나타난 의문문 어미를 대상으로 실제적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의문문을 실현하는 종결어미의 경계성조를 분석하여 개별 형태들이 지닌 고유 의미에 따라 억양과 결합하여 이루어내는 문법적, 화용적 특성을 살피고 이들의 상관성을 논의한다.

## 2. 연구 방법

### 2.1 분석 자료

분석 대상이 되는 자료는 서울 출신 20~30대 여성 35명의 자유발화이다.

20대 초, 중반은 15명, 20대 후반은 10명, 30대 초, 중반은 10명이다. 2,3인이 한 그룹에 속하도록 하여 모두 14그룹으로 구성하였다. 참가자들은 상호 간에 반말체를 사용하는 친분이 두터운 또래들이다. 주제를 따로 지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잡담 형식의 대화를 이어가도록 하였다. 모두 300분 분량으로 34,000어절이다<sup>2)</sup>.

## 2.2 분석 방법

선행연구들에서 구어 반말체 종결어미로 분류한 어미 목록(성기철 1985, 한길 1991)과 이희자·이종희(2006), 백봉자(2010),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참고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정리한 반말체 의문문 어미는 아래와 같다.

(가) -는/ㄴ가, -나, -오, -(느/-으)냐, -(으)니, -(으)라, -어(아/여), -지, -(으)르  
까, -르래

위의 목록을 본 연구의 분석 틀로 활용하되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자료를 귀납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한다. 의문문은 화자의 미지성에 의해 정보요구성이 나타난 경우로 한정한다<sup>3)</sup>. 의문문을 실현하는 종결어미 목록을 추출하고 문장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문장유형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나눈다<sup>4)</sup>. 각 어미의 문장유형 실현 양상에 따라 문법 강도를 논의한다.

2) 음성자료는 조민하(2011)에서 사용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3) 윤석민(2000: 146)에서는 의문법의 의미를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은 전혀 모르거나 불완전하게 알지만 청자는 완전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 정보를 요구하는 문장종결법'이라고 기술하였다. 즉, 화자의 앞의 상태가 완전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의문문의 범주로 본 것이다. 이는 본고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

4) 감탄법의 의미는 '어떤 사실을 느끼어 말함'(김민수, 1978:69),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독백하는 상황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유형'(남기삼·고영근, 1985:347)으로 기술된다. 그러나 상호적 의사소통인 대화 자체가 화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행위이며, 화용 전략에 의해 독백 형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으로 별도의 문장유형을 설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조민하(2015-)에 따르면 기존에 감탄문 어미로 분류되었던 '-군'이 감탄문을 실현한 경우는 없었고, '-구나' 역시 감탄문 실현 비율이 27%밖에 되지 않았다. 감탄적 용법은 'HL', 'LHL', 'M', 'L'와 같은 역양이 '-구나', '-더라', '-다', '-

의문문에 실현된 경계 성조를 분석하여 담화 맥락에서의 화용적 기능을 분류한다. 억양 분석은 ‘L’, 혹은 ‘H’의 이원적 상대값으로 전사되는 K-ToBI 체계를 따르되, 경계 성조의 목록 및 의미 기능은 구어 자료를 분석한 조민하(2011)을 따른다. 이후 개별 어미의 의미에 따라 달리 실현되는 억양의 특징을 논의한다. 의문문 어미의 문법적 특성과 화용적 특성의 관련성을 분석하고 이에 기여하는 억양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 3. 분석 결과

#### 3.1 출현 빈도 및 목록

의문문이 실현된 어미는 전체 7,407 발화 가운데 2,382 발화로 32%를 차지한다. 자료에서 사용된 어미 목록은 아래와 같이 모두 12 종류이다.

[표 1] 의문문 어미의 출현 빈도/비율(%)

빈도 순위	어미 형태	빈도	백분율(%)
1	-어	1171	49.2
2	-야	533	22.4
3	-지	363	15.2
4	-대	110	4.6
5	-나	59	2.5
6	-네	46	1.9
7	-는가	36	1.5
8	-니까	29	1.2
9	-냐	23	1.0
10	-니	7	0.3
11	-르래	4	0.2
12	-디	1	0.04

네’, ‘-어’, ‘-야’, ‘-나’, ‘-냐’와 같은 다양한 종결어미와 결합하여 실현된다. 따라서 ‘감탄’은 화자의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적 속성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고 평서문에서 다룬다.

‘-어’가 전체의 49.2%로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어’, ‘-야’, ‘-지’ 3 종류의 어미 사용 비율이 전체의 86.8%이다. 중립적인 의미를 지닌 ‘-어’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고 일부 형태가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현상을 통해 구어에서 운율적 기여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분석된 어미 목록 가운데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나타나지 않은 형태는 ‘-오, -느냐, -으냐, -으랴’의 4 종류이며, 선행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으나 본 연구 자료에서 나타난 형태는 ‘-야, -대, -디, -네’ 4 종류이다.

- (1) 1 A 선생님이 니네는 콩나물이라고
- 2 B 무슨 뜻이야(H)
- 3 A 물을 아무리 부어도 밑에 다 빠져서 도대체 애가 언제 크나 싶는데  
-결국은 쭉쭉 다 큰다고
- 4 B 어 신기하다
- 5 A 그냥 생각 없이 부으라고
- 6 밑 빠진 독이 아니니까

‘-야’는 ‘-이야’의 축약으로 보고 있으나 위와 같이 서술격 조사 뒤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야’는 533회 나타나 전체 의문문 어미의 22.4%로 두 번째 높은 빈도를 차지한다. ‘-야’는 구어 반말체 종결어미의 특징을 잘 드러내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2) 1 A 그 사람한테 그게 보인대(H)
- 2 B 그냥 딱 얼굴을 보면 이미지 같은 게 떠오른대
- 3 귀신 있나 이런 것도 떠오르나봐
- 4 할아버지랑 살아서 그런 거 같기두 해
- 5 A 오~

‘-대’는 ‘-다고 해’, ‘-라고 해’를 포함하는 대표 축약형이다. 전체 자료에서 ‘-다고 해’, ‘-라고 해’로 사용된 경우는 없었고 모두 ‘-대’, ‘-래’로 나타난다. ‘-대’ 역시 110회 사용되어 구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종결어미 형태이다. (2)는 화자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청자에게 묻는 것으로 정보요구성이 드러난다.

- (3) 1 A 언니 사무실이 서울에 있는 데로 옮기게 됐다고  
 2 오월부터  
 3 B 잘됐다  
 4 얼굴 볼 수 있겠네(H)  
 5 A 힘들 수도 있어  
 6 언니 회사는 동네랑 좀 멀어

‘-네’는 사전에서 느낌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로 기술된다. 권재일 (2004)에서도 어미 전용(5)에 의해 의문문이 실현된 경우로 보고 있어 의문형 어미의 범주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화자의 확신이 부족한 경우 ‘H(고조)’와 결합하여 확인을 위한 정보를 요구하기도 한다. 정보요구성의 강도는 낮으나 화자가 정보에 대한 ‘앎의 상태’가 불완전하여 미지성이 존재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이 미지성이 존재하는 경우 의문문으로 분류하였다.

- (4) 1 A 난 동남아는 한 번도 안 가 봤거든  
 2 아 홍콩이랑 대만 말고  
 3 B 좋은 데만 갔다 왔네(H)  
 4 A 휴양지로는 안 갔지  
 5 리조트 막 이런 데는 안 가고

(4)의 ‘-네’는 (3)과 같이 고조로 실현되었으나 사태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전달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요구할 뿐 화자의 미지성은 없다. 이와 같은 경우는 평서문으로 분류된다.

---

5) 어미가 본래 수행하는 종결법과 다른 문장유형을 실현한 경우를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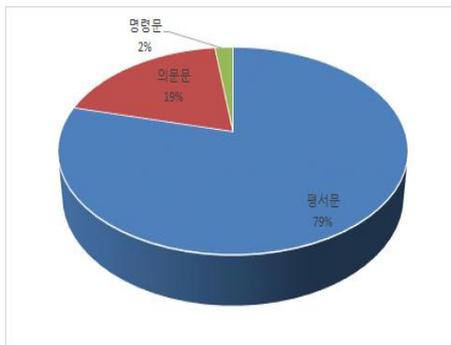
- (5) 1 A 남자 친구는 그 초콜릿 아까워서 먹었디(H)  
 2 B 어  
 3 처음에는 못 먹다가 나중에는 먹었지  
 4 내가 또 만들어 준다고  
 5 얼마든지 드세요((하하))  
 6 A 아직 존댓말 쓰는 사이야?

‘디’는 ‘-디냐’의 구어적 형태로 나타난다. 유대가 강한 또래 사이나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사용하는 형태이다. 본고의 분석 자료에서는 30대 초반의 대화에서 1회 나타난다. 역시 화자가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청자에게 정보를 요구하는 의문문을 실현하는 경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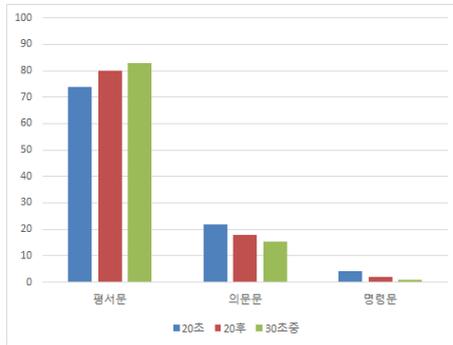
‘-오, -느냐, -으냐, -으랴’는 젊은 층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어미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야, -대, -디, -네’는 기존의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으나 20, 30대에서 활발하게 사용되는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3.2 문법적 특징

3.1에서 의문문을 실현하는 어미들이 수행하는 문 종결 양상을 분석하여 보았다. 문장종결법에 따라 평서문 1,823회, 의문문 460회, 명령문 58회 나타났다. 청유문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림 1] 의문문 어미의 문장 종결 양상



[그림 2] 연령에 따른 문장 종결 양상(%)

평서문은 전체의 79%로 매우 높은 빈도를 보인다. 그 다음이 의문문(19%), 명령문(2%)이다. 명령문은 범용어미로 지칭되는 ‘-어’, ‘-지’에서만 나타난다. 흥미로운 것은 연령이 높을수록 평서문 실현 비율이 높고, 의문문이나 명령문 사용 비율은 낮다는 점이다. 연령이 증가할수록 타인에 대한 요구를 직접 화행보다는 간접 화행의 형식으로 표현한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2] 의문문 어미의 문장유형 실현 양상

	어미	문장유형(빈도/%)			합계(%)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1군	-디	0	1(100)	0	1(0.04)
	-니	1(11.1)	6(85.7)	0	7(0.3)
2군	-나	23(39)	36(61.0)	0	59(12.5)
	-냐	9(39.1)	14(60.9)	0	23(1.0)
	-르까	12(41.4)	17(58.6)	0	29(1.2)
	-니가	20(50)	16(50)	0	36(1.5)
3군	-르래	3(75)	1(25)	0	4(0.2)
	-야	<b>427(80.1)</b>	<b>106(19.9)</b>	<b>0</b>	<b>533(22.4)</b>
	-지	<b>291(80.2)</b>	<b>69(19.0)</b>	<b>3(0.8)</b>	<b>363(15.2)</b>
	-어	<b>930(79.4)</b>	<b>186(15.9)</b>	<b>55(4.7)</b>	<b>1171(49.2)</b>
4군	-네	42(91.3)	4(8.7)	0	46(1.9)
	-대	106(96.4)	4(3.6)	0	110(4.6)
합계		1,823 (76.5)	460 (19.3)	58 (2.4)	2,382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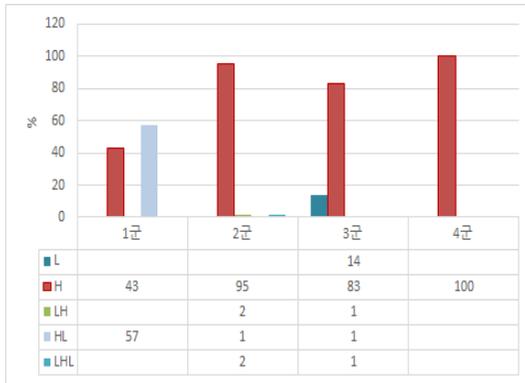
의문문 어미들은 대부분 평서문과 의문문을 모두 실현한다. 하나의 문장유형만을 실현하는 어미는 의문문에 나타나는 ‘-디’뿐이다<sup>6)</sup>. 박재연(1998)에서는 ‘-ㄴ가’, ‘-르까’ 등은 의문문에만 사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 담화에서는 정보에 대한 화자의 미지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각각 50%, 41%의 비율로 나타난다(3. 3에서 자세히 다룸).

위 [표 2]를 통해 의문문을 실현하는 어미들의 문장 종결 양상과 그 정도성을 살펴볼 수 있다. ‘-디’, ‘-니’는 의문문 실현 비율이 80% 이상, ‘-나’, ‘-냐’, ‘-르까’, ‘-ㄴ가’는 50-60% 내외, ‘-르래’, ‘-야’, ‘-지’, ‘-어’는 15-25%, ‘-네’, ‘-대’는 9% 이하로 매우 낮은 편이다. 의문문 실현 비율이 높을수록 문법 기능의 강도가 높고 의문문 실현 비율이 낮을수록 문법 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기능 강도가 높은 경우는 의문문 고유의 의문형 어미로, 기능 강도가 낮은 경우는 평서형 어미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어미들이 실현하는 문장유형의 통계학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어미 형태에 따른 문장유형의 차이는 유의미했다( $F=6.66, p<.001$ ).

의문문 실현비율에 따라 편의상 4 집단으로 나누어 보았다. 의문문 실현비율 80% 이상은 1군, 50-60% 내외는 2군, 15-25%는 3군, 9%이하는 4군으로 분류한다. 역양의 실현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각 집단별 경계성조 평균 비율을 구하여 보았다.

6) 출현 빈도 5 이하의 어미 ‘-디’, ‘-르래’는 차후에 자료를 보완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살펴보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림 3] 의문문에 실현된 억양 양상(%)

1군은 의문문 실현 비율이 가장 높았던 집단으로 직접적 반응 유도형의 ‘H’가 43%, 부드러운 어조의 반응을 유도하는 ‘HL’가 57% 나타난다. ‘HL’는 주로 ‘-니’에 실현된 것으로 ‘-니’가 지닌 유연함이 억양으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2군과 3군에서는 ‘H’로 실현되는 비율이 매우 높아진다. 특히 2군은 95%가 ‘H’로 실현되어 문법 기능에서 억양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군과는 달리 ‘LH’와 ‘LHL’가 각각 2%씩 나타난다. ‘LHL’는 설명, 주장의 기능을 수행하는 억양으로 반응 유도형과 관련이 없다. 3군은 다른 집단에 비해 ‘L’의 사용 비율이 14% 나타난다. ‘-어’, ‘-지’는 세 가지 문장유형을 두루 실현하는 어미이다. 여러 가지 종결법을 실현하기 위해 형태, 의미, 억양 등 다양한 장치를 활용한다. 의문사를 사용하여 의문문을 실현할 경우 문법 기능을 형태 요소가 맡게 되어 억양은 잉여적 요소가 된다. 따라서 저조의 억양으로도 의문문을 수행할 수 있다. 의문문 실현 비율이 매우 낮은 4군 ‘-네’, ‘-대’는 100% ‘H’로 의문문을 실현한다. 의문문의 기능을 전적으로 억양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를 통해 형태 요소의 의문 기능 강도는 ‘1군> 2군> 3군> 4군’의

7) 준구어 자료를 분석하여 ‘-냐’와 ‘-니’의 의미를 비교한 송지영(2013)에서는 ‘-냐’가 거칠고 공격적인 어감을 주는 반면, ‘-니’는 배려나 친절을 표현하는 적극적 공손의 기능을 실현하는 어미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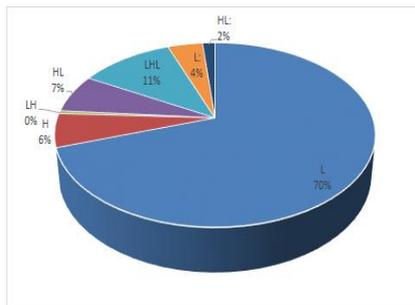
순서로 1군에 속한 ‘-디’, ‘-니’가 가장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형태 요소의 기능 강도가 약해질수록 억양 의존도는 높아진다. 의문사와 같은 형태 요소가 개입될 경우 억양 의존도는 낮아진다.

어미에 따른 의문문의 실현 비율과 억양의 상호 작용을 관찰하여 의문문 어미의 문법 기능 강도와 정도성을 파악해 보았다. 이를 통해 의문형 어미의 문법 범주와 의미에 관한 시차적 특성을 논의해온 그간의 연구들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3.3 화용적 특징

화용적 특징은 담화 안에서 화자의 태도를 드러내는 표현적 기능, 청자에 대한 화자의 요구가 드러나는 관계적 기능, 맥락의 흐름에 관여하는 담화 기능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문법 기능 강도가 가장 강했던 1군의 ‘-디’, ‘-니’를 제외하고 화용적 특성이 잘 드러날 것으로 예측되는 나머지 10 종류의 어미를 대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10 종류의 어미가 평서문으로 실현된 1,822개의 발화이다. 평서문 안에서 동일한 형태가 수행하는 화용적 기능은 주로 억양에 의해 변별된다. 따라서 각 어미와 결합한 억양과 그 특징을 논의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 1) 전체적인 특징



[그림 4] 평서문에 실현된 억양 양상

위의 그림은 전체 평서문에 실현된 억양을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진술의 ‘L’가 1,272회로 70%, 설명, 주장의 ‘LHL’가 205회로 11%, 부드러운 반응유도의 ‘HL’가 7%(124회), 직접적 반응 유도인 ‘H’가 6%(107회), 간접성을 드러내는 장음화된 저조인 ‘L:’가 4%(76회) 화자의 부정적 감정이 드러나는 ‘HL:’가 2%(28회) 나타난다. 간접적 반응 유도인 ‘LH’는 전체 중 10회로 0.5%를 차지한다. 표현적 기능은 ‘LHL’, ‘L:’에 의해, 관계적 기능은 주로 ‘H’, ‘LH’에 의해 나타난다. 발언권을 유지하고 대화의 주도권을 이끄는 담화 기능은 주로 ‘HL’에 의해 실현된다. 이와 같이 의문문을 실현하는 어미들은 평서문에서도 다양한 억양과 결합하여 화용적 기능을 수행한다. 억양에 의한 표현적 기능은 15%로 나타나 관계적 기능(13%)과 담화 기능(7%)보다 그 비율이 높다.

[표 3] 의문문 어미에 따른 억양 실현 양상\_평서문

	경계 성조(%)						
	L	H	LH	HL	LHL	L:	HL:
-ㄴ가	5	<b>95</b>	-	-	-	-	-
-나	9.1	<b>90.9</b>	-	-	-	-	-
-르래	33.3	66.7	-	-	-	-	-
-르까	25	58.4	-	-	8.3	8.3	-
-네	50	27.5	15	-	5	2.5	-
-냐	25	25	-	12.5	12.5	-	<b>25</b>
-지	<b>74.6</b>	11	0.3	-	6.5	5.5	2.1
-야	<b>59.1</b>	1.4	0.5	12.9	<b>16</b>	8.1	1.9
-어	<b>81.4</b>	0.8	0.1	5.5	9.1	1.8	1.3
-대	42.5	0.9	-	<b>17.9</b>	<b>31.1</b>	8.3	-

위 [표 3]은 ‘H’의 비율에 따라 의문문 어미들의 억양 실현 양상을 정리한 것이다. ‘H’는 청자에 대한 반응 유도와 관련된 억양이다. 문법적 측면에서는 의문문을 실현하며, 화용적 측면에서는 관계적 기능을 실현한다. 의문문이 지니는 관계적 기능은 평서문에서도 ‘H’를 통해 그 특징이 일부 보존되어 나타난다. 위의 어미 가운데 의문문의 문법 기능 강도가 가장 강한 ‘-ㄴ가’와 ‘-나’가 평서문에서도 ‘H’의 실현 비율이 가장 높다. 반면 기능 강도가 낮았던 ‘-지’, ‘-야’, ‘-어’는 ‘H’의 실현 비율이 매우 낮다. 이와 같이 의문문 어미의 문법 강도에 따라 화용적 측면에서도 상이한 양상이 드러난다.

의문문 어미들이 실현하는 화용적 기능의 통계학적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어미 형태에 따른 억양의 차이는 유의미했다( $F=6.66, p<.001$ ).

- (6) 1 A 재력이 처음부터 있진 않았을 거 같애  
 2 B 그래도 그 정도 가게를 낸다는 거 자체가 시내에  
 3 A 그런가(H)  
 4 B 그렇지 않나(H)  
 5 A 음..

‘-나가’, ‘-나’는 주로 ‘H’와 결합한다. 위와 같이 정보요구성 없이 상대방에 대한 반박, 혹은 대립 의도를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추측의 ‘-나가’, ‘-나’는 모두 비단언적 속성을 지닌 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직접적 반응 요구인 ‘H’와 결합하여도 간접적 표현이 실현된다.

- (7) 1 A 공부 외에 다른 길을 우리가 모르는 거잖아  
 2 B 인턴 같은 거 많이 하면 좋은 거 같애  
 3 C 그냥 한 우물 팔래(L)  
 4 B 넌 어차피 영국 들어갈 거니까  
 5 C 너 유학은 안 가?

- (8) 1 A 와 유승호 너무 멋있어  
 2 B 유승호 얘기 아냐?  
 3 A 야, 너 맞을래(H)  
 4 너 요새 못 봤구나  
 5 완전 남자야~

‘-르래’는 (7)과 같이 ‘L’로 실현될 때 ‘-으려고 하-’의 의미를 지니는 ‘의도’를 나타낸다. 그러나 (8)과 같이 ‘H’와 결합할 때는 ‘의도’의 의미는 없고 자신과 다른 견해를 드러내는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야단치는 뜻으로 사용된다.

‘-나가’, ‘-나’, ‘-르래’가 저조 혹은 고조와만 결합하는 것과는 달리 아래의 어미들은 이 외의 다양한 억양과 결합하여 화자의 의도를 드러낸다.

- (9) 1 A 조사나 어미는 광연이가 다 가져간 거  
 2 B 응  
 3 A 내가 접속 들어간 건 다 빼놨거든  
 4 B 그럼 난 모해야 되지?  
 5 A 너도 뭔가 찾았다는 성의는 보여야 되지 않을까(H)  
 6 B 그러니까
- (10) 1 A 이미숙이 꽃뱀이야 거기서  
 2 술주정뱅이가 원래 남편인데 버리고 돈 많은 남자한테 지금  
 3 B 남성 편력이 상당히 조금 그랬던  
 4 C 음  
 5 B 아 근데 그게 생계를 위한?  
 6 생계형 농촌형 팜프파탈이랄까(H)

‘-르까’는 기존에 의문형 종결어미로 분류되고 그 의미는 ‘의심, 추측, 의도’ 등으로 기술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보요구성 없이 상대방에게 권유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제시하며 반응을 요구하는 관계적 기능에 사용되기도 한다.

- (11) 1 A 나 식사 때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는데  
 2 불면증 걸려가지고  
 3 B 걱정되고 막 그래서 그런가?  
 4 A 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5 난 그래서 막 생각하는 거야  
 6 내가 식사 때 어떻게 썼을까(L)

‘-르까’는 저조로 실현될 경우 (11)과 같이 자문의 형식을 취한다. 저조는 형태소의 기본 의미를 실현하는 억양이므로 ‘-르까’의 고유 의미는 ‘자문’이며, 의문은 정보요구성이 있을 경우 억양에 의한 확대 기능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 (12) 1 A 니 동생은 계속 거기서 집에서 사는 거야?  
 2 B 응, 이제 졸업반이야  
 3 졸업하며는 뭐 생활이 좀 바뀔 거 같애  
 4 환경이랑 다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L:)  
 5 A 그니까  
 6 너 혼자 너무 힘드니까

자문의 의미를 통해 (12)와 같이 화자의 특별한 의도를 드러내기도 한다. 표면적으로는 자문의 형식을 취하지만 저조에 장음화를 실현하여 미래에 대한 화자의 바람, 희망을 표현한다.

- (13) 1 A 예물에 집착하셔  
 2 보여줘야 된다고  
 3 그래서 그냥 일곱 세트를 했다  
 4 B 화통하시네(L:)  
 5 A 아니 근데 모냐면 그게 너무 그게 있는 거야  
 6 너무 촌스러운 거야

- (14) 1 A 발표 걱정 돼  
 2 B 이번에 유월에 하는 거야?  
 3 A 해야 될 거 같애  
 4 안 그러면 너무 늦어져서  
 5 B 얼마 안 남았네(LH)  
 6 A 그치 얼마 안 남았지

‘네’는 진술의 ‘L’와 결합하여 화자가 현재 새로 알게 된 정보를 나타낸다. (13)과 같이 장음화된 저조로 실현될 경우는 화자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감탄적 용법이다. 그러나 (14)와 같이 간접적 반응 유도 의역양 ‘LH’와 결합하면 방금 지각된 사실을 확인하고 청자의 반응을 유도하는 표현이다. ‘-르까’와 ‘-네’의 의미는 비 단언적이며 간접적이다. 따라서 간접적 반응 유도, 간접 표현, 부드러운 감탄적 용법에 사용된다.

- (15) 1 A 그 뭐냐(L)  
 2 사자성어 생각이 안 나네  
 3 B 그게 뭐야?  
 4 A 그거 많은 것 중에 딱 하나  
 5 뛰어난 애  
 6 B 근계일학
- (16) 1 A 내가 쓴 글은 정말 보여주지가 힘든 거 같애 너무 부족하니까  
 2 B 맞아  
 3 C 야 우리 우울한 얘기만 하고 있지 않냐(H)  
 4 점점 우울해지는 거 같애

‘-냐’는 해라체 의문형 종결어미로만 기술되어왔다. 그러나 (15)와 같이 ‘L’로 실현되어 잘 생각나지 않는 경험적 사실을 스스로 확인하는 독백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또한 (16)과 같이 명령을 간접화행 형식으로 제시하여 발화 수반력을 약화시키기도 한다. 두 경우 모두 정보요구성은 없다.

- (17) 1 A \*민경 개도 안습이야  
 2 B 옛날엔 되게 예뻐는데  
 3 C 개?  
 4 개 왜 왜 그렇게 됐냐(HL:)  
 5 B 진짜 예뻐는데 소속사에서 하라고 했대  
 6 C 진짜?

‘-냐’는 ‘-니’보다 직접적인 어감을 갖는다는 보고가 있다. 이러한 ‘-냐’의 단언적 속성으로 인해 화자의 부정적 어감을 강하게 드러내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17)은 제3자에 대한 못마땅함을 표현하기 위해 ‘-냐’에 감탄적 억양인 ‘HL:’를 실현하였다. 이 외에도 ‘LHL’와 결합하여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거나 주장하기도 한다.

송지영(2013)에서 ‘-니’는 친절하고 다정한 의미화용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니’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본고의 자유 발화 자료에서는 ‘-니(7회)’보다는 ‘-냐(23회)’가 더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이

유는 송지영(2013)이 준구어인 TV 드라마 대본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드라마 대본은 작가 개인이 인물의 전형성을 드러내기 위해 특정 구어 현상을 극대화하여 제작한 창작물이다. 언어 현실의 반영이나, 현실적 언어 현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이유이다. 구어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운용적 고려가 가능한 ‘순수-구어자료’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지’, ‘-야’, ‘-어’는 ‘-르까’, ‘-네’, ‘-냐’보다 ‘L’의 실현 비율은 높지만, 표현적 기능과 관계적 기능을 실현하는 억양의 종류는 더 다양하게 나타난다.

- (18) 1 A 그 때 사진 보니까 진짜 웃긴 거야(LHL)  
 2 너무 웃기게 나온 거야(LHL)  
 3 앨범 완전 눈이 진짜 이렇구  
 4 그 전날 내가 머리 찢랐거든  
 5 서태지 머리인 거야  
 6 B 그 동창이 갖고 온 거야?

특히 ‘-야’는 ‘LHL’와 결합하는 비율이 높다. 단정적인 서술에 사용되는 ‘-야’의 의미 특성<sup>8)</sup>으로 인해 (18)과 같이 ‘LHL’와 결합하여 주로 화자의 주장, 강조와 같은 단언적 표현에 사용된다.

## 2) 연령별 특징

위에서 억양에 의해 화용적 특징이 변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연령별 특징에 초점을 두어 억양의 주요 기능을 논의하고자 한다.

전체 1,822발화 가운데 20대 초, 중반은 684발화, 20대 후반은 641발화, 30대 초, 중반은 497발화로 각각 37.5%, 35.2%, 27.3%를 차지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발화 수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9)</sup>.

8) ‘-야’의 의미는 ‘단정하여 서술, 강하게 부정하는 것(이희자·이종희 2008)’, ‘어떤 사실을 상대에게 단정적으로 서술하여 말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다음 사전)’로 기술된다.

9) 조민하(2014:247)에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동일한 시간 동안 산출한 전체 어절 수는 증가하는 반면, 발화의 길이는 길어지는 현상에 대해 연령이 증가할수록 복잡한 구조의 발화를 산출하는 능력이 발달하고 발화를 계획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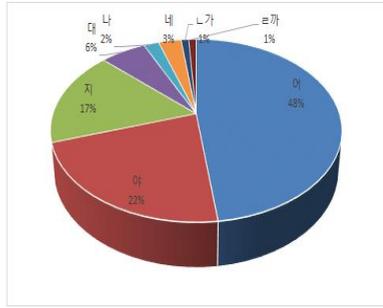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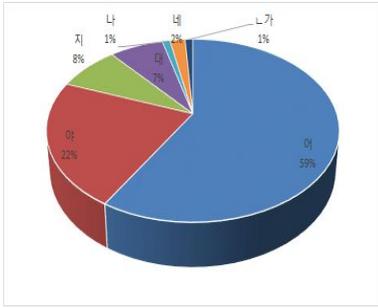
[표 4] 연령에 따른 억양 실현 양상\_평서문(%)

억양	20초,중	20후	30초중
L	70.2	67.6	<b>72.1</b>
H	4.2	8.6	4.8
LH	0.6	0.2	1.0
HL	5.6	9.2	5.4
LHL	<b>14.3</b>	10.9	7.4
L:	3.8	2	<b>7.4</b>
HL:	1.3	1.6	1.8

위 [표 4]는 평서문의 억양 실현 양상을 연령대에 따라 정리해 놓은 것이다. 20대 초반의 경우는 설명, 주장의 ‘LHL’가 14.3%(98회)로 사용 비율이 높은 반면 30대 초, 중반에서는 오히려 ‘LHL’의 비율이 매우 낮고 진술의 ‘L’(72.1%, 359회)와 간접 표현에 사용되는 ‘L:’(7.4%, 37회)의 비율이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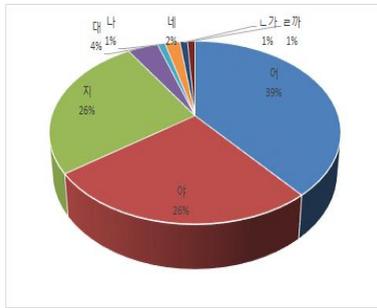
- (19) 1 A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왜 불리내고 난리야 막 이려는 거 아냐?  
 2 B 아냐(LHL)  
 3 다들 문자오고 난리 났었던 말야(LHL)  
 4 미애도 막 언니 정말 즐거웠어 막 이랬던 말야  
 5 A 나두 가고 싶다
- (20) 1 A 몇 차까지 이런 건 상상도 못할 거 같애  
 2 슬픈 거다야, 솔직히 말해서  
 3 B 슬픈 거지(L:)  
 4 A 석사 때도 네 시까지 마시고 열 시 수업을 들어갔었거든  
 5 물론 머린 좀 아프지만

20대 초반의 ‘LHL’는 설명보다는 (19)와 같이 주장의 단언적 표현에 주로 사용된다. 장음화된 저조는 거절, 반박, 명령의 화행에서 간접 표현에 사용되기도 하며 (20)과 같이 상대방에 대한 공감,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연령이 낮을수록 단언적 억양을, 연령이 높을수록 공손성을 드러내는 억양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 20대 초, 중반 어미 실현 양상

[그림 6] 20대 후반 어미 실현 양상



[그림 7] 30대 초, 중반 어미 실현 양상

위의 [그림 5]-[그림 7]의 결과를 통해 20대 초에서는 ‘-어’의 사용 비율이 59%, 20대 후반에서는 48%, 30대에서는 39%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지’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한다. ‘-아’는 30대에서 사용 비율이 높다.

- (21) 1 A 임대료만 한 달에 사역이야
- 2 한 지점에서 그 정도 손익 경영이 나와야 되는 거지(L)
- 3 B 그림 단장이라는 사람이 그걸 다 관리를 하는 거야?
- 4 A 그렇지(L)
- 5 장난 아니게 쪼이는 거지(L:)
- 6 그러니까 죽는 거지(L)

- (22) 1 A 목소리로 듣는 거랑 글로 보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  
 2 B 맞아  
 3 A 글로 봤을 때는 다시 읽고 싶지 않은 수준이야(L)  
 4 B 어  
 5 너무 심하더라  
 6 종이가 아깝더라

‘-지’는 (21)의 ‘발화 2, 5, 6’과 같이 화자의 확신을 드러낼 때 사용된다. 이 가운데 ‘발화 5’는 잠음화된 저조를 통해 확신에 친근함을 더한다. (22)의 ‘-야’ 역시 화자의 확신이 드러나는 어미이나 친근함 없이 단정의 태도만 드러난다.

- (23) 1 A 어색하다  
 2 B 특이한 좀 독특한 경험이긴 해  
 3 이런 녹음실에 들어와서  
 4 A 근데 반응할 수 없으니까 좀 껍껍하긴 하다  
 5 C 근데 좀 자연스러워질 거 같애(L)  
 6 이거를 약간 안 보고 하면

30대에서 ‘-어’의 사용 비율이 가장 낮으나, 위 (23)과 같이 ‘-애’의 꼴로 쓰인 경우는 다른 두 그룹에 비해 두 배나 많다. ‘-애’는 현재 틀린 발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본고의 분석 자료에서는 모두 180회 사용되어 구어에서 매우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어미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자신의 생각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전달하기 위한 화용 전략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 (24) 1 A 우리 고문관이 딱 보더니 저 사람은 눈 코랑 뭐 좀 했네요((하하))  
 2 B 어~  
 3 A 미대 나와서 좀 다른가봐  
 4 눈썸미가 있나봐  
 5 뭔가 부자연스런 그런 느낌이 있대(L)  
 6 B 그래?

‘대’는 다른 사람의 말을 옮겨 전달할 때 사용한다. 자신의 주장에 권위를 신거나 직접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제3의 정보를 인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때 사용하기도 한다. 20대 초반에서 ‘대’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이와 같은 전략을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5) 1 A 근데 이지랑 너무 짬있었대(HL)  
 2 대화도 되게 잘 통했나봐  
 3 나는 이지가 이 오빠한테 너무 막 대할까봐 걱정했다  
 4 B 아니야  
 5 개가 우리에게나 막 대하지 어디서 본색을 드러내겠어  
 6 A 어, 짬있었대  
 7 별 애길 다 했대(LHL)

‘대’는 (25)의 ‘발화 7’과 같이 ‘LHL’와 결합하여 설명에 사용되기도 한다. ‘대’는 확정, 단정성이 없으므로 ‘-야’와는 달리 ‘LHL’가 실현되어도 단언성이 나타나지 않는다. ‘대’는 (25) ‘발화 1’과 같이 화제를 제시하고 발언권을 유지하는 담화 기능에 관여한다. ‘대’는 [표 2]에서 4군으로 분류되어 문법 기능이 가장 약한 의문문 종결어미에 속한다고 하였다. 이를 통해 의문문 어미가 실현하는 문법 기능과 화용적 기능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의문문 어미의 화용적 기능을 분석하였다. 문법 기능이 강한 어미일수록 ‘H’의 비율이 높고 제한된 억양이 실현된다. 문법 기능이 약할수록 다양한 억양과 결합하여 표현적 기능, 관계적 기능, 담화 기능에 적극적으로 활용된다. 즉, 반응요구성이 약화되면서 화용적 기능이 강화된다.

화용적 기능은 어미의 의미에 따라 달라진다. 비 단언적이고 간접적 의미의 어미는 ‘L’, ‘LH’, ‘LHL’와 결합하여 부드러운 감탄적 용법, 간접 표현, 간접적 반응 유도, 설명에 사용된다. 반면 확정성, 단정성의 의미를 지닌 어미는 ‘H’, ‘HL’, ‘LHL’와 결합하여 직접적 반응 유도, 부정적 느낌의 표현, 주장 강조와 같은 단언적 표현에 사용된다.

연령이 낮을수록 단언적 억양과 중립적 의미의 형태를 사용하며, 연령이

높을수록 유연한 억양과 확신, 단정성이 드러나는 형태를 사용한다. 사회화가 진행되면서 운율 요소에 의한 공손전략을 좀 더 많이 활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결론

지금까지 구어 의문문 어미의 문법적, 화용적 특징을 고찰하기 위하여 자유발화에 실현된 억양을 분석하여 상호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본고의 결과와 논의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구어 의문문을 실현하는 어미들은 대부분 평서문과 의문문에 고루 나타나며 기능과 의미의 정도성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크래’, ‘-네’도 정보요구성을 드러내며, ‘-나’, ‘-냐’, ‘-크까’, ‘-나가’도 평서문에서 대립, 반박, 제안 등의 의도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화용전략에 사용된다.

둘째, 의문문 실현 비율을 문법 강도와 관련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기능 강도가 강할수록 고유의 의문형 어미로, 기능 강도가 약할수록 평서형 어미에 가깝다고 보았다. 형태 요소의 기능 강도가 약할수록 억양 의존도는 높아지며 화용적 기능이 활발해진다. 문법성과 화용성이 상호 보완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구어 의문문 어미와 결합한 억양은 양태성을 드러내는 데 주요 기능을 담당한다. 실제 사용에서는 화용적으로 표현적 기능, 관계적 기능, 담화 기능에 활용된다. 비 단언적, 간접적 의미의 어미는 ‘L:’, ‘LH’, ‘LHL’와 결합하여 부드러운 감탄적 용법, 간접 표현, 간접적 반응 유도, 설명에 사용된다. 확정성, 단정성의 어미는 ‘H’, ‘HL:’, ‘LHL’와 결합하여 직접적 반응 유도, 부정적 감탄, 주장 강조와 같은 단언적 표현에 사용된다.

넷째, 연령이 높을수록 유연한 억양을 통해 공손전략을 많이 활용하며, 확신이 드러나는 형태를 사용한다. 연령이 낮을수록 단언적 억양과 중립적 의미의 형태를 사용한다.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대인 관계를 위한 운율 요소의 활용이 더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간의 연구에서는 특정 어미 형태의 문법과 의미를 독립적으로 규정하는

데 많은 노고를 쏟아왔다. 본고에서는 구어의 자연성을 절대성이 아닌 점진성, 문법과 의미의 분리가 아닌 형태, 의미, 맥락, 운율 요소들의 협응으로 이루어내는 표현체계로 해석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깊이 있는 논의를 위해 자료를 보완하고 성별, 화계, 친소 관계에 따른 종결 양상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권재일(2004), 구어 한국어의 의향법 실현방법,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민수(1978), 인문계 고등학교 문법, 어문각.
- 남기심·고영근(1985), 표준국어문법론, 탑출판사.
- 박재연(1998), 현대국어 반말체 종결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재연(2004), 한국어 양태 어미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백봉자(201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문법 사전, 도서출판 하우.
- 서정목(1987), 국어 의문문 연구, 탑 출판사.
- 성기철(1985), 현대국어 대우법 연구, 개문사.
- 송지영(2013), ‘-냐’와 ‘-니’: 의미화용적 특성과 쓰임의 차이,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석민(2000), 현대국어의 문장종결법 연구, 집문당.
- 이순화(2010), 종결어미 ‘-는가’, ‘-니지’, ‘-르까’, ‘-르지’에 대한 연구,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희자·이종희(2006), 학습자용 어미·조사사전, 한국문화사.
- 임흥빈(1984), “문종결의 논리와 수행역양”, 말 9, 연세대 한국어학당.
- 장경희(1985), 현대국어의 양태 범주 연구, 탑출판사.
- 조민하(2011), 연결어미의 종결기능과 역양의 역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민하(2014), “종결어미 ‘-거든’의 화용전략과 역양의 기능: 10대, 20대, 30대의 연령 변이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65, 한국어학회, 237-262.
- 조민하(2015ㄱ), “구어 종결어미 ‘-잖아’의 화용적 특성과 역양의 기능: 여성 자유발화의 반말체를 중심으로”, 화법연구 28, 한국화법학회, 163-192.
- 조민하(2015ㄴ), “구어 어말어미의 종결 구조와 역양의 기능: 여성 자유발화의 반말체를 중심으로” 한국어학 69, 한국어학회, 313-365.
- 한길(1991), 국어 종결어미 연구, 강원대학교 출판부.
- 허연경(2008), 한국어 의향의문형 종결어미의 연구 : ‘-(으)르까’와 ‘-(으)르래’를 중심으로, 한국의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eckman, M. & S.-A. Jun.(1995), K-ToBI annotation convention. Unpublished manuscript, Ohio State University and UCLA
- Jun, Sun-Ah(1993),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Ph.D.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 Jun, Sun-Ah.(2000), K-ToBI(Korean ToBI) Labelling Convention; version 3.1. UCLA Working Paper in Phonetics 99.
- M.A.K. Halliday and M.I.M. Mattiesen(2004), *An Introduction to Functional Grammar*(3rdedition). London:HodderArnold.
- Scott Thornbury(1999), *How to Teach Grammar*. Pearson Education
- Lyons, J.(1977), *Semantics I·II*, Cambridge University Press.

[인터넷 사이트]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tdweb2.korean.go.kr/>  
다음 사전(고려대 한국어대사전) <http://dic.daum.net/word/>

조민하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130-701  
전자 우편: freejj@hanmail.net

원고 접수일: 2016. 05. 04.  
원고 수정일: 2016. 06. 22.  
계재 확정일: 2016. 06. 24.